



강 호 철  
국립경남과기대 조경학과 교수



▲ 도시 전경 비록 건축 밀도는 높지만 경사지붕의 색상과 옥상 녹화 등 도시경관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볼 수 있다.

## 모나코 공국의 지혜

수년전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을 지나다 계획에 없던 모나코 공국을 답사하게 되었다. 프랑스 영토에 외딴 섬처럼 자리한 초미니 국가이지만 기대 이상으로 많은 느낌과 시사점을 안겨 주었다.

좁은 국토 하면 싱가포르가 우선 떠오른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국'이고 다음으로 지중해를 낀 모나코 공국(Principaute de Monaco)이란다. 외지고 작아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심을 끌고 널리 알려진 계기는 헐리웃의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Grace

Patricia Kelly)를 왕비로 맞은 사건이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 아프리카의 '모로코'와 곧잘 혼돈한다.

국토가 1.95Km2(약 60만평)로 큰 골프장이나 대학 Campus 정도에 불과하다. 그마저 척박하고 비탈진 암반에다 앞은 바다고 주변은 모두 프랑스 영토다.

3만 인구에 85%가 외국인(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이고 순수 모나코인은 5천여 명에 불과하다. 주로 유럽인들의 휴양지로 잘 알려진 이곳은 세금과 병역 의무가 없어 인기가 높다.



▲ 암석 식물원 경사진 돌 틈 사이에서 생육하고 있는 다육식물과 선인장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입지환경에 적합한 식물을 이용한 지혜가 돋보인다.



▲ 환경조각 이곳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F1 자동차 경주대회'를 알리고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호화롭게 단장한 호텔과 카지노 시설이 국가 경제의 밑거름이다. 낮에는 요트에서 푸른 지중해를 누비고, 밤에는 카지노에서 즐기는 것이 이들의 오랜 생활 습관이자 여가 행태란다. 왕실 가족들의 상식을 초월한 사생활에서 빚어지는 부정적 뉴스들이 국가 홍보와 경제에 보탬이 된다니 참 독특한 문화요 재미있는 나라다.

비좁은 국토에 고밀도 개발을 한 모습이 꼭 홍콩 같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다양한 테마의 정원들(마틴가든, 동물정원, 전망정원, 공녀의 장미정원, 일본정원 등)과 각종 박물관(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자동차, 밀납, 선사시대 인류박물관 등), 국제적 시설을 갖춘 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특화된 공간들이 공원 녹지와 어우러져 깔끔하고 상큼한 도시 분위기를 자아낸다. 더욱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것은 넓게 트인 지중해의 질푸른 바다와 청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여유롭게 오가는 요트 행렬이다.

### 바위산 절벽에 조성한 식물원

보잘 것 없는 나라에서 곳곳에 매력적인 공원과 식물원, 문화공간을 두고 있음이 기특하고 놀랍다. 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탈진 바위산 절벽에 식물원이 있다. 바위 틈새 사이로 계단과 산책로를 만들고 제비집 같은 기반에 나무를 식재하여 관광객과 시민

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가꾸었다. 열악한 입지와 최악의 환경에서 조성한 선인장을 주제로 한 특이하고 별난 식물원이다.

이렇게 좁은 국토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매력적인 녹색관광과 식물원을 조성한 기발하고 파격적인 모습이 놀랍기만 하다.

우리는 아직도 공공 성격의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충에 매우 소극적이고 인색하다. 이들 열린 공간은 결코 사치가 아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공간이다. 이는 곧 미래도시의 경쟁력이 될 수 있으며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는 생각과 가치관의 전환이 절실한 우리의 현실이 아쉽고 답답하다. ☁

▼ 공원속의 카지노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카지노 시설이 도시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은 잘 가꾸어진 여유로운 공원이고 지중해를 낀 산책로와 연결되어 매우 쾌적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